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영민, 신남주*
아동행복연구소

A Study on the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in the Child Violence

Young-Min Seo, Nam-Joo Shin*
Research Fellow, Children's Happiness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이 하향화됨에 따라 유아기 예방교육 실행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C유치원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아동폭력 관련 유아 문제 행동은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과 협박,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아동폭력 발생 시 주로 직접개입법을 사용하나 많은 업무와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적절한 개입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재보다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용 또는 각 반 부담임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교수 방법으로는 문제행동 발생 직후 상호작용,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그룹 활동, 구체적인 상황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아동폭력 예방교육 실행 시 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이 학습되어 흉내 내는 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s of child violence for identifying the site's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child violence. To this end, nine teachers were interviewed in-depth. From the study results, first, child violence-related child behavior, which usually occurs in kindergartens, includes physical assault, aggression, verbal violence, threats and threats, and bullying. Second, teachers usually use direct intervention laws in cases of child violence, but were finding it difficult to intervene properly with many tasks or high teacher-to-child ratios. Teachers recognized the need for lower teacher-to-child ratios and placement of each class burden. Third, teachers were aware of the need for prevention education for child violence targeting infants, and instigated the following appropriate interactions immediately after problem behavior occurred: large group activities, specific multimedia education data and parent education. Fourth, teachers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problem behavior being learned and imitated through educ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education for children's violenc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could be applied to infant education sites, focusing on the types of child violence-related problem behaviors that occur in kindergartens.

Keywords : Child, Violence, Kindergarten, Teacher, Group Interview

*Corresponding Author : Nam-Joo Shin(Children's Happiness Research Institute)
email: ilovekcc@naver.com

Received July 3,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Revised July 31,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1. 서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학교폭력이 발생하던 초기에는 학생 개인 대 개인 싸움,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내 집단 패싸움 등의 신체적인 가해행위와 언어적 폭력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위협과 집단의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된다[2]. 어떤 학생이 힘의 우위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학생으로부터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신체적인 상처와 불리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다[3,4].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학교결석, 학교활동 기피, 등교에 대한 두려움[5] 외에도 학업 성취도와 성적 저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6]. 이러한 학교폭력 경험은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된 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7], 성인기에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피해 성향은 세대 간에도 이어질 수 있다[8]. 2011년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어 2012년 2월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7대 실천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9].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공동으로 조사한 '2018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1.3%(5만명)로 2017년 1차 대비 0.4%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 증가(0.7%)가 중·고등학생(각 0.2%, 0.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고 학교폭력 대상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어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나타남을 보여줌에 따라 유아교육기관도 더 이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10].

2013년에 유아교육기관 1000개소를 표집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만4~5세 유아반 교사 50.2%가 유아의 따돌림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고,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36.7%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 따돌림은 여아들 사이에서 90% 이상 일어나며, 남아들 사이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이 98% 이상 나타나는 등 아동폭력에 성별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다[11]. 미국의 범죄자들의 성장과정 및 개인사를 조사한 Karr-Morese와 Wiley은 '영유아시기에 공격성과 폭력성의 씨앗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증재 및 예방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1].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기에 발현되는 폭력행동을 증재하거나 예방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기의 폭력적 행동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동기의 경미한 형태의 공격행동은 이후의 심각한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교폭력에 취약한 아동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12].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과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13,14]과 교사[15,16,17]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초등학교 학생까지 그 연구 대상이 확대되었다[9, 18]. 또한 최근 학교폭력 발생 대상 연령이 하향화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폭력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효과적인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 아동폭력의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사전연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유아기 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현주·김명하(2016)은 학교폭력 관련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양적 연구에서 첫째, 학교폭력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의 63.7%로, 유치원 교사가 피해, 가해, 가관 경험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폭력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68.7%의 교사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관련 교육은 2시간, 역할극 및 워크숍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 관련 교육내용은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실제적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유치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실태를 보고한 유지안·김은심(2016)은 유치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첫째,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해 유치원 학교폭력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유치원에서 학교 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유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교사, 유치원, 학부모, 유아, 교육청, 정부의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교육, 유치원의 생활지도, 사회의 인식변화, 법적인 제도 정비 모두 중요하나 특히,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심은정(2017)은 유아기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유아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부모가 교사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고, 유아기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교사와 부모 모두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중 가정요인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유아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부모는 인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교사는 유아기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연수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22]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폭력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와 교사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수준, 요구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결국 유아기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아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통해 유치원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어떤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이 일어나는지, 교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한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은 무엇인지 등 유아 아동폭력에 대한 실태와 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유아 아동폭력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도 N시 C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9명이고,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teacher	children's age & number	teacher's age	teacher's final education background	teacher's career period
A	3, 19	28	a college graduate	5 & a half years
B	3, 18	22	a college graduate	6 months
C	3, 18	23	a college graduate	1 & a half years
D	4, 25	28	a college graduate	8 & a half years
E	4, 26	23	a college graduate	1 & a half years
F	4, 25	31	a university graduate	5 & a half years
G	5, 27	39	a college graduate	15 & a half years
H	5, 26	27	a college graduate	4 & a half years
I	5, 27	22	a college graduate	6 months

C유치원은 만3세~5세 연령별로 각각 세 반씩 총 9반이 있으며, 만3세 반의 평균 유아 수는 18명, 만4세 반은 25명, 만5세 반은 27명이다. 교사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 6개월에 걸쳐 있는 경력자들이며, 연령 또한 최하 22세에서 최고 39세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폭넓은 경력 기간과 연령대의 분포에 따른 자료 수집의 다양성을 장점으로 판단하여 C유치원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면담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문항으로, 유치원의 아동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요구되는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면담문항은 총 9개로 유치원에서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행동은 무엇인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문제행동 목격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과 교

수방법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방교육 실행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유아교육과 교수 2인과 유아교육과 박사과정생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집단면담 방법을 취했으며, 집단은 4~5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회상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두 그룹으로 나눌 때 하나의 그룹에 만3세~5세 반 담당교사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여 연령별로 다른 점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면담은 정규수업이 마친 오후 3시쯤에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하였으며, 간단한 간식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각의 질문에 모든 교사가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등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여 보여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면담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그룹별로 약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전체를 녹음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집단면담 결과 전사한 내용을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김영천(2016)의 분석절차에 따라 '전사, 코딩, 주제생성'의 세 단계로 자료 분석[23]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총 240분동안 면담한 내용을 전사한 A4 52매를 여러 번 반복하여 정독하였고,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어휘, 사건 등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1차 범주 목록은 연구목적에 부합 하도록 재조직하였고, 유의미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 분석에 2인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목화한 범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삼각검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24]. 마지막으로 일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유아교육 전공자 2인과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유치원 교사가 경험하는 아동폭력 행동', '아동폭력 발생 시 교사의 대처와 어려움', '교사가 원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교사가 예상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우려점'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유치원 교사가 경험하는 아동폭력 행동

유치원 교사가 경험하는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은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따돌림, 위협이나 협박 등 다양하며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학기 초에는 친구를 때리고 꼬집고 장난감을 빼앗고 밀치는 등의 행동이 자주 나타났어요.

(만3세 교사A)

언어발달이 좀 빠른 몇 명의 유아들은 "칼로 너를 찔러 죽일 거야!"와 같은 과격한 말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저희반 아이들은 줄 설 때 밀치거나 장난감을 말없이 빼앗아가는 행동을 특히 많이 해요.

(만3세 교사C)

만3세 유아들은 언어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차지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할 때 신체적 폭행이나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기 초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폭행이나 공격적인 행동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며, 언어발달이 빠른 몇몇 유아들에게서는 과격한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만4세가 되면서 언어가 점점 더 잘 되니까 나쁜 말이나 욕을 많이 써요. "너 똥지고 싫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작년까지 만3세반 담임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만4세 아이들은 과격한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만4세 교사E)

여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따돌리는 일도 간혹 생겨요. 질투로 인해 "재는 빼고 우리끼리 놀자." 같은 말을 친구들에게 하면서 따돌려요. 크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끔씩은 지능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만4세 교사F)

서로 장난을 치다가 때리게 되고 울게 되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만4세 담임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어적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게 해가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만4세 교사D)

만4세 유아들은 신체적 폭행이나 공격적 행동은 만3세에 비해 다소 줄어드나, 언어가 발달하면서 주변의 과격한 말이나 욕설을 배워 또래에게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또래관계에서 질투 때문에 친구를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일도 발생했다.

얼마 전 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귀여운 척하잖아. 너랑 놀기 싫어!”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아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면서 “음~ 입 냄새 나!”라고 말하더라고요.

(만5세 교사H)

한 남자친구가 저에게 와서 “선생님! ‘똥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외에도 욕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나쁜 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형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만5세 교사G)

저희반에는 언어발달이 늦어서 말을 잘 못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너는 말이 안 통해서 같이 못 놀겠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같이 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5세가 되면 친구를 따돌리고 같이 놀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인 줄은 알고 있어서 교사 앞에서는 티를 안내요. 이런 것도 그애 엄마랑 통화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만5세 교사I)

만5세 유아들에게서는 과격한 말이나 욕설, 친구를 놀리는 말 등의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과격한 말은 주변 성인이나 나이가 더 많은 형제를 통해 배운다. 장난감이나 스티커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협박, 그리고 따돌림도 발생하는데, 언어발달이 느리거나 발음이 어눌한 유아를 대상으로 따돌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만5세의 따돌림은 교사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

3.2 아동폭력 발생 시 교사의 대처와 어려움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을 목격했을 때 먼저 다친 아이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가해·피해 유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다. 그런 다음 유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직접개입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력 상황을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경우, 말을 잘하는 유아의 설명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가 많고 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많다 보니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항상 충분한 중재를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이에 교사들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지거나 각 반마다 부담임이 배치되어 교사의 유아 관찰 용이성을 높이고 중재가 필요한 상황일 때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 확보를 원한다. 또한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서는 부모와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언어폭력의 경우 부모의 언어습관을 통해 학습된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직접 부모와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은 유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직접 개입하기]

얼마 전 자기 활동지를 밟았다면서 친구를 밀친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밀쳐진 아이가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왜 밟았는지 물어보고, 친구를 미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OO야, 니가 내 활동지를 밟고 있어. 발 좀 치워 줄래?”라고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만4세 교사E)

아무래도 아이들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욕한 아이를 불러서 ‘욕은 나쁜 말이다’라고 말해 줘요.

(만5세 교사J)

한번은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모래를 뿌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유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면 상대친구는 마음이 어떨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상대친구가 자기를 놀려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만5세 교사K)

[대처 시 어려움]

제가 담당해야 하는 아이들이 27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 모두가 한 눈에 안 들어와요. 문제상황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증재를 더 잘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5세 교사G)

저는 각 반마다 부담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때 그때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해 주고 싶어도 제가 그 아이들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짧게 끝내게 돼요. 부담임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을 부담임에게 맡기고 제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3세 교사A)

제가 문제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말을 잘하는 친구의 이야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만3세 교사B)

저희 반에는 “너 죽고 싶냐?”, “미친놈” 등의 과격한 말을 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 남자친구 아빠가 그런 말을 사용해서서 배운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결국 아빠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할 텐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4세 교사F)

3.3 교사가 원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유아 대상 아동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에서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적절한 의사전달방법과 언어표현 방법을 몰라서 공격성을 보이거나 과격한 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폭력 예방교육, 유치원에서 필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

라서 친구를 때리거나 밀거나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별 예시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5세 교사G)

욕설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욕을 듣는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지,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욕설 대신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3세 교사A)

[교사가 원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필요한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신체적 폭력,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따돌림 등을 들었다. 학교폭력 교수방법과 관련해서는 발생 즉시 개별 또는 그룹으로 상호작용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반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통해 집단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한다.

유아들 사이에서는 주로 신체적 폭력, 공격성, 언어폭력, 따돌림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이버폭력이나 감금 같은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3세 교사B)

유아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행동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하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만3세 교사A)

[교사가 원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 방법]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체적 폭력,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따돌림 등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폭력 유형별 상호작용 방법,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계획안과 교육에 필요한 교수매체의 제공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는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제공을 꼽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안전교육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내용 중 생활안전 부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

보통은 유치원에서 폭력을 목격했을 때 그 즉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호작용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이자 예방교육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어떻게 상호작용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 발음이 어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놀이를 하면 말이 안 통해서 잘 놀 수가 없다고 따돌리는 모습을 보고 순간 좀 막막했어요. 사실 저도 그 친구랑 이야기 할 때 좀 답답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내가 교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다양한 상황의 아동폭력이 일어나는데,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 별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교사교육을 받고 싶어요.

(만4세 교사E)

아이들에게 아동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제 반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과 같은 대그룹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예방교육 계획안이 제공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만5세 교사H)

그런데 사실 계획안 외에 수업에 필요한 교수매체나 교구 같은 것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잘 집중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만5세 교사G)

저는 멀티미디어 자료 형식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안전교육처럼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무엇보다 좋아해요.

(만3세 교사A)

지금 안전교육 자료에서 생활안전 부분에 아동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업그레이드 된 안전교육 영상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그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만3세 교사C)

3.4 교사가 예상하는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어려움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 적용 시 우려되는 점으로 교육을 통해 오히려 욕설의 뜻을 배우게 되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행동 등을 흉내 내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또

한 과격한 말이나 욕설의 경우 가정에서 배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반면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가정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에 유아흡연예방교육을 했을 때 한 학부모에게 항의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담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이가 교육 때문에 담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길쭉한 모양의 물건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시늉까지 했다면서 도대체 이런 교육을 왜 하는 거냐고 흥분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동폭력 예방교육도 혹시 그런 학부모가 생길까 걱정돼요.

(만5세 교사H)

가정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욕설 같은 거요. 아빠한테 배운 아이들의 경우,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꼭 그 아빠는 참석을 안 하세요.

(만5세 교사H)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아동폭력이 하향화됨에 따라 유아기 예방교육 실행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폭력에 대한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아기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집단 심층면담을 통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의 유형 뿐 만 아니라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이 더 이상 학교폭력의 안전지대에 놓이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유아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은 초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나 점차 심각한 수준의 공격적 행동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므로[12], 유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따돌림을 중심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아동폭력 발생 직후 가해·피해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그룹활동 형태의 예방교육, 구체적인 상황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아동폭력 상황별

상호작용방법, 대그룹활동,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유치원에서 적절한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하므로 학령기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세컨 스텝을 기초로 개발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적용한 Eman(2017)은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룹에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25], 이는 유아시기에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보다 더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용과 부담임 배치가 실행된다면 교사들은 아동폭력 목격 직후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의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 유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들이 태도 및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아동폭력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의 6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20]고 보고한곽현주·김명하(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 유치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일어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폭력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따돌림, 위협이나 협박 등이며 이러한 유형들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만3세 유아들은 언어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대체로 신체적 폭행이나 공격성을 많이 보이나 2학기에 접어들고 언어가 더 발달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만4세 유아들은 만3세에 비해 신체적 폭행이나 공격성은 다소 줄어들고 언어폭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5세 유아들은 과격한 말이나 욕설, 친구를 놀리는 말 등의 언어폭력을 빈번히 사용하는데 이는 주변 성인이나 나이가 더 많은 형제에게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돌림도 발생하는데, 만5세 유아들은 친구를 따돌리는 것은 나쁜 것임을 알고 있기에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친구를 따돌려 대부분 피해 유아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폭력 문제행동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그대로 두거나 유아기에 감정이나 정서적 행동을 소통 받지 못하면 학령기에 학교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2] 각 연령에 따라 적절한 예방교육이 이루어

어져야 한다. 만3세에게는 신체적인 공격이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언어발달이 급증하는 만4세에게는 올바른 언어사용 방법과 더불어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경우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만5세에게는 올바른 언어사용 방법과 함께 주변에 성인이나 또래가 있는지 없든지 언제나 친구를 따돌려서는 안 되며, 친구를 따돌리는 것이 왜 나쁜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 중에는 유치원에서 아동폭력 행동 목격 시, 먼저 다친 유아가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유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재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교사가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경우,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 중재가 쉽지 않고 직접 목격했다 하더라도 일과 운영 중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충분한 중재를 해주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교사들은 유아 행동 관찰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반별로 부담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언어폭력의 경우 가정에서 학습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아 아동폭력 관련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국 아동폭력 문제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내용으로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곽현주·김명하(2016)의 연구 결과[20]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없어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아동폭력을 직접 목격하는 횟수를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부담임에게 잠시 반 운영을 맡기고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마다 부담임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할 때 적절한 의사전달방법과 언어표현법을 몰라서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알려준다면 아동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유치원에

서 주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따돌림 등을 제안하였다. 문용린(2006)에 의하면 공격성의 경우 유치원 시기부터 예방과 초기 개입이 있어야 심각한 수준의 행동으로 악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아시기에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26]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아동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상호작용, 교육계획안을 활용한 대그룹활동, 구체적인 상황별 교육 내용이 담긴 멀티미디어 영상 시청, 부모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유아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부모가 93.8%라고 보고[21]한 유지안·김은심(2016)의 결과를 볼 때, 아동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유아 아동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교육 중 생활안전 파트의 내용에 아동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로 개발된다면 교사들이 더 쉽게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주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 및 협박, 따돌림 등의 사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 대그룹활동 계획안 및 교수매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 적용 시 교육을 통해 오히려 욕설의 뜻을 배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흉내 내는 등 모방 폭력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언어폭력의 경우는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참여 저조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 대그룹활동 계획안 및 교수매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자료 개발 시 기초연구를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과 협박, 따돌림 등이 있으며, 교사들은 아동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직접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 제공과 더불어 현재보다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 또는 부담임 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

었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아동폭력 발생 직후 적절한 상호작용, 대그룹 활동, 구체적인 상황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아동폭력 예방교육 실행 시 교육을 통해 아동폭력 행동이 학습되어 흉내 내는 일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유치원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안을 통해 후속 연구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집단면담을 진행하였지만, K도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유치원의 문제행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전국의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을 표본으로 수집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한다면 유아교육기관별 아동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유아 교사들은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유아 아동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Law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nforcement on May 1, 2012][Presidential Decree No.23689, March 30, 2012 Full Revision].
- [2] H. G. Hwang, H. G. Yoon, J. Y. Kim, H. J. Park and S. H. Kim,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for Infant Teachers" Gyung-gi: Yangseowon, 2018.
- [3] J. H. Song, G. S. Kim, S. H. Park, L. H. An, L. S. Oh et al,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Seoul: Hakjisa, 2013.
- [4] T. G. Yang, "The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Efficient Measures-Focused on media", *a Collection of Treatises of Police Science* Vol.7, No.2, pp.459-492, Oct. 2012. DOI: <http://doi.org/10.16961/polips.2016.11.3.211>
- [5] J. H. Le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Alternatives in the School Violence of Youth", *Pyong-Taek Review* Vol.9, No.2, pp.135-156, 1997.
- [6] J. H., Hoover, R., Oliver, R. J. Hazler, "Bull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13, No.1, pp.5-16, 1992.

- [7] A. M. Ambert, "A qualitative study of peer abuse and its effects: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No.1, pp.119-130, 1994.
- [8] D. Olweus, *Bull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1993.
- [9] H. J. Kwak, M. H. Kim, "An Analysis of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8, No.6, pp.263-281, 2014. DOI: <https://doi.org/G704-000814.2014.18.6.010>
- [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white paper on youth*,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 [11] E. S. Kim, E. Y. Choi, A. R. Cho,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Humanity Education of Infants and Children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stitute for Child Care Policy, 2013.
- [12] H. G. Hwang, H. G. Yoon, J. Y. Kim, H. J. Park, S. H. Kim,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School Violence Counseling Theory Practicality*, Seoul: Yangseowon, 2013.
- [13] J. H. Ko,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Victim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2009.
- [14] S. M. Chae, , *A Study on the Youth'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Wonkwon University, Iksan-si, Korea, 2011.
- [15] S. Y.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Living Map for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si, Korea, 2009.
- [16] J. Y. Kim,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si, Korea, 2013.
- [17] J. S. An, *A Study on the Role and Recognition of Teachers to Prevent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18] J. K. Song, *Comparis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Opinions on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si, Korea, 2008.
- [19] E. J. Lee, "Perceptions of Children and Parents toward School Violence o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1, No.2, pp.291-317 Oct. 2007. DOI: <http://doi.org/G704-000427.2007.11.2.005>
- [20] H. J. Kwak, M. H. Kim, "An Analysi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School Violence-related Train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4, pp.217-236, 2016. DOI: <https://doi.org/G704-000814.2016.20.4.002>
- [21] J. A. You, E. S. Kim, "Recognition of students' parents about kindergarten school violence", *Open Infant Education Association*. Vol.21, No.4, pp.523-547, 2016. DOI: <https://doi.org/G704-000666.2016.21.4.004>
- [22] E. J. Sim,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arents and teachers f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preschoo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23]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Academy press, 2016.
- [24] M. E. Graue & J. J. Walsh,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Thousand Oaks, CA: SAGE, 1998.
- [25] S. A. Eman & A. G. Marzoka, "Effectiveness of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Aggressive Behaviors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7, No.4, pp.116-123, 2017. DOI: <https://doi.org/G704-000666.2016.21.4.004>
- [26] Y. R. Moon, "Prevention and Counseling of School Violence" Seoul: Hakjisa, 2006.

서 영 민(Young-Min Seo)

[정회원]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 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4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 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18년 7월 ~ 현재 : 아동행복연 구소 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유아숲체험교육, 학교폭력, 유아흡연예방교육, 유아 수·과학 교육, 보육교사, 부모교육

신 남 주(Nam-joo Shin)

[정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 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7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 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18년 7월 ~ 현재 : 아동행복연 구소 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유아흡연예방교육, 학교폭력, 아동문학, 부모교육, 유아인성 교육